한동욱 교수, 전국 대학교수 배드민턴대회 '2연패'

전북대학교 한동욱 교수(스포츠과학과)가 제22회 전국대학교수 배드민턴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는 한국대학배드민턴연맹 주관으로 지난 6월 27~28일 충주에서 열렸으며, 전국에서 200여 명의 교수가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24일 전북대에 따르면 한 교수는 가장 높은 등급인 A급 부문에 출전해 하태희 교수(군산간호대)와 복식조를 이뤄 전 경기를 승리하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한 교수는 "2009년 전북대에 부임한 이후 스포츠과학, 특히 스포츠심리학을 전공하며 배드민턴 관련 연구와 교육에 힘써 왔다"며 "그간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져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 교수는 현재 전북대 체육부 부장과 대한배드민턴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체육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장은성 기자

금만농협, 시원한 수박 나눔 · 사랑의 쌀 기탁식

김제 금만농협(조합장 최승운)과 농협 김제시지부(지부장 김유현)은 지난 23일 '시원한 수박 나눔행사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사랑의 쌀 기탁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최승운조합장과 김유현지부장, 금만농협 농가주부모임 강효례회장을 비롯한 회원과 농협직원은 150여개 수박을 직접 만경, 성덕, 청하 각 영농회 마을회관에 전달하여 폭염에 지친 지역주민과 조합원들에게 잠시나마 휴식의 시간을 만들었다.

최승운 조합장은 폭염 및 기습폭우에 지친 조합원님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농협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힐링의 시간을 선물하고, 취약계층 쌀지원을 통해 쌀소비를 촉진과 건강한 쌀소비 문화를 만들고자 쌀10Kg 170여포를 관내 조합원에게 전달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백산면 지사협, 독거남성에 밑반찬 지원

김제시 백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고은용)가 24일 저소득 독거남성 40세대을 대상으로 '사랑듬뿍 밑반찬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랑듬뿍 밑반찬 지원사업은 스스로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층 독거남성의 건강증진과 고립예방을 위해 면 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연 5회 계획됐으며, 이번 지원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손수 손질하여 만든 배추김치, 멸치조림, 장아찌 등 밑반찬과 곰탕을 각 가정에 전달하면서 안부 및 건강을 확인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서 열린 '전북 4-H 한마음대회' 성황리 마무리

도내 14개 시 · 군 회원 1000여명 참석… 저탄소농업 실현 · 전북도 올림픽 유치 다짐

정읍에서 열린 제33회 전북 4-H 한마음대회가 도내 14개 시·군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4일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환경을 지키는 농업! 미래로 향하는 올림픽! 전북 4-H와 함께!'를 주제로 진행됐다. 저탄소농업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픽 유치 염원을 함께 담아 마련됐다.

행사는 4-H 서약 제창으로 시작돼 공로자 표창과 이학수 시장의 환영사, 축사 등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시·군 회원들의 장기자랑과 어울마당이 펼쳐져 화합의 시간을 더했다. 특히 행사장에서는 정읍의 대표 농특산물 전시와 함께 자생차와 지황차 시음 부스가 운영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정 (사)한국4-H전북특별자치도본부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역 농업을 묵묵히 이끌어온 4-H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가 경험을 나누고 농촌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환영사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과 농업인의 사회적 가치 증진에 정읍시가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열 전북자치도농업기술원 원장은 "4-H 이념 아래 저탄소농업 실천과 농촌 발전을 위한 노력이 전북 농업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며 "4-H 회원들이 농생명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대회를 주관한 (사)한국4-H전북특별자치도본부와 주최한 (사)한국4-H정읍시본부는 '지(頭)·덕(心)·노(手)·체(體)'의 4-H 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한 인격 함양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통해 구급출동 골든타임 사수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현장 간담회

무주소방서(서장 김장수)가 무주군보건의료원을 찾아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과 '신설 구급팀 현안 업무'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무주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란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의 중증도(Pre-KTAS)와 주요 증상 정보를 119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다수의 참여 병원에 동시에 전송되고, 각 병원은 실시간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회신해 가장 적절한 이송 병원을 신속히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간 지연과 반복 전달의 비효율을 줄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큰 이점이 있다.

특히, 무주군은 병원 이송 거리가 멀고 응급의료 기반이 제한적인 지역적 특성상,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무주군보건의료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적극적 활용이 지역 응급의료 대응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7월 1일 자로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조직 개편으로 무주소방서에 구급팀이 신설됨에 따라

구급 출동 단계부터 병원 이송, 구급 품질 관리까지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구급 시스템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에 무주소방서에서는 지난 22일 무주군보건의료원을 찾아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 활용, '신설 구급팀'과 의료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사업 추진 방향과 무주소방서와 무주군보건의료원 간 정보 공유 및 협조 체계 구축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장수 서장은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효자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원시, 2025년 하반기 폭력 예방 통합교육

남원시는 지난 23일 시청 강당에서 전 직원 대상 2025년 하반기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의 책무로 강조되고 있는 폭력 예방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4대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에는 국방부 성인지교육 우수강사 부문에서 전국 1등을 차지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공직사회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알기 쉽게 전달하였다.

특히 직장 내 권력관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인식 전환을 강조해 공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김선정 소방위 다정소통관으로 위촉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24일, 직원 간의 벽을 허물고 더욱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식정119안전센터 김선정 소방위를 다정소통관으로 위촉했다고 전했다.

다정소통관은 직원들의 고충·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각 센터 순회를 소통을 통한 직원간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김 소방위는 "직원들이 웃음꽃 피우는 직장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며, 동료들의 작은 불편함부터 큰 어려움까지 스스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허심탄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감소통관(구급팀장 최승범)과 손발을 맞춰 더욱 활기찬 남원소방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우리아이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운영

남원소방서는 응급의료 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만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우리아이 스마트 119구급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아이가 앓고 있는 질환, 복용 중인 약물, 진료 중 병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119구급대원이 해당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천식, 발작, 알레르기 등 응급증상이 반복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예방적 시스템으로,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오진 가능성을 줄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이송 및 응급처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가까운 소방서나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119 전화로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신청 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 · 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 · 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